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현순덕(여, 1932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- 줄거리: 계모가 본처 딸은 맛없는 콩만 먹여서 건강하고 자신의 딸은 맛 좋은 팥만 먹여서 건강하지 못했다고 한다.

[조사자] 콩데기 풋데기 얘기해 줍서.

[제보자] 옛날에.

[청중] 다슴얘기.

[제보자] 어릴 때, 이제 콩데기는 큰어멍에 치고 풋데기는 이제 족은어멍에 치난, 큰어멍이 돌아가부난 족은어멍이 왓어.

풋은 맛이 있는 거난 지 뜰을 주고, 콩데기는 이제 다슴애기나네 이제 콩만 술아그네 콩만 맥여부난, 그 뜰은 똥뚱행 건강하고, 풋데기는 이녁 난 이녁 애기라 풋만 술양 맥이난 그자 쫐쫀해네 병이 옛날 병이 나나네, 고찌 보지 못햇어.

콩데기는 이제 건강하고, 풋데기는 빠짝 몰랏젠. 경 헌 옛말이 잊어낫어.

- 핵심어 : 콩데기, 풋데기, 큰어멍, 족은어멍, 콩, 풋, 다슴애기